

## 사진으로 본 한국의 해안선

최광호<sup>1</sup>

Kwang Ho Choi<sup>1</sup>

1999년 6월 30일, 오랫동안 꿈꾸고 있던 해안선 여행을 시작하였다. 서울을 떠나 동해안 고성 of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하여 남해안을 돌아 서해의 판문점까지 일주한 다음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해산하기까지 11박 12일 동안 자동차로 움직인 거리는 모두 4,365 km였다. 다음해인 2000년 6월 30일 서해안의 인천 소래에서 제 2차 해안선 여행을 시작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돌아 동해안의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갔다가 서울로 돌아왔다. 15박 16일 동안의 여행거리는 4,634 km였다.

두 번의 해안선 여행으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특징을 내 나름대로 느낄 수 있었다. 동해안은 가장 바다다운 바다,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푸른 바다이다. 섬과 섬이 연달아 있는 남해안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의 풍광이 램프라트의 빛처럼 다가오는, 아름다운 서정이 깔린 빛의 바다이다. 빨과 빨이 이어지는 서해안은 철학과 이야기가 담긴 낙조의 바다이다. 이 모두가 빛을 통해 보는 우리의 해안선이다.

동해안 최고의 멋진 일출과 기암괴석이 어울리는 삼척의 촛대바위, 울산의 울기등대가 있는 울기공원, 문무대왕비가 용으로 승천하다 떨어졌다는 전설이 담긴 암석의 풍경이었다. 남해안에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섬 남해와 가장 섬다운 섬 거제도 기억에 남는다. 특히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거제도 우리 현대사의 한을 간직하고 있는 섬이다. 그리고 바다의 낙조를 볼 수 있는 서해안에서는, 김제 만경대의 빨을 보기 위해 망해사에 올랐을 때 끝없이 이어지는 빨과 빨 위로 떨어지는 최고의 낙조를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해안선의 특징을 만끽하면서 한편으로는 바다가 없는 우리 현실을 느끼기도 했다. 공기와 물은 출렁이며 남북을 오가지만 동해와 서해의 우리

해안선은 오후 6시만 지나면 통행이 금지된다. 낮에는 눈으로 바다를 보지만 밤에는 파도소리와 더불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다인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밤바다가 없는 것이다. 이 모두가 해안선에 드러난 우리의 현실이다.

2001년 8월 24일에 제 3차 해안선 여행을 시작한다. 역사 이전의 역사를 해안선을 통해 어떻게 볼 수 있을 까를 눈여겨 볼 것이다. 경상남북도에서 전라남북도까지 분포되어 있는 선사시대의 화석과 고인돌, 돌의 문화를 주제로 이번 여행을 다녀올 참이다.

<sup>1</sup> 동신대학교 사진학과 (Dongshin University, Naju, 520-714, Korea, urmuch@netsgo.com)







